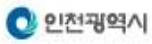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3월 23일 총 2매	
담당 부서	자치행정과	담당자	• 자치분권담당 박경원 ☎440-2401 • 담당자 신은아 ☎440-2402	
<b>사진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<b>보 도 시 점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박남춘 인천시장, ‘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’ 캠페인 동참

- ‘우리’ 가 함께 만드는 자치분권 소망담은 캠페인 동참 -  
- 다음 참여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,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지명 -

- 박남춘 인천시장은 23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자치분권의 소망을 담아 ‘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’ 캠페인에 동참했다.
- ‘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’ 캠페인에 참여한 박 시장은 ‘자치분권 2.0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인천, 자치분권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’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든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게시했다.
- 박남춘 시장은 “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, 지방정부와 의회 역량 강화,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등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하며, “인천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모든 지역과 시민들 곁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준비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- 이 캠페인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 및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.
- 박남춘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, 다음 참여자로 주민중심 ‘자치분권 2.0’을 잘 추진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치분권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,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의미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을 지명했다.

#### 〈붙임〉 사진자료

